90년 前 흑백 사진 속에 담긴 경주는?

사진작가 노세 우시조 촬영본 일반에 첫 공개

원원사터, 황복사터, 감은사지 등 찬란한 불교문화를 보유한 경주의 90년 전 모습은 어떨까. 1920년대 불교 문화재를 비롯한 우리 문화유산들을 촬영한 미공개 사진자료가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장될 뻔한 비하인드스토리까지 전해져 더욱 큰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1일~10월 31일 경주엑스포
원원사터 발굴 과정도 사진 담아
87점 일반에 최초 공개돼 '눈길'
유리재생산 업체 넘어갈 위기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문화재' 展을 9월 1일~10월 31일 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 건축 · 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能勢丑三, 1889-1954)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우리 문화재의 유리건판 사진 87점이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작품들은 노세 우시조의 촬영본 700여점 중 엄선한 것으로, 원원사터 · 황복사터 · 감은사지 등 불교 문화재를 비롯해 신문왕릉 · 성덕왕릉 · 헌덕왕릉 등이 포함된다. 경주 지역 사진 뿐 아니라 예천 개심사, 구례 화엄사, 개성 고려왕릉 등 기타 지역의 90년 전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노세 우시조는 1926년 스웨덴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가 서봉총 발굴현장을 방문할 당시 수행단 일원으로 처음 경주를 방문했다. 그는 경주의 문화유산, 특히 십이지신상에 매료돼 그 때부터 10여 차례 경주 유적지를 찾아 문화재들을 유리건판에 담았고 사비를 들여 발굴 복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근무하던 노세 우시조는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한국의 십이지상 및 경주의 발굴 사진을 찍은 유리건판을 유리재생산 업체에 넘기려고 했다. 이를 일본의 불교문화재 사진작가 오가와 세이요(小川晴暘)가 창업한 문화재 전문 사진업체 아스카엔(飛鳥園)이 구매 · 소장해 오늘에 이르렀다.

아스카엔은 노세 우시조의 유리건판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해 12월 박임관 경주학연구원장과 오세윤 사진작가와 함께 디지털 촬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귀중한 문화재 사진이 담긴 건판필름이 유리컵으로 재생산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은 오가와 세이요 작가와 아스카엔 사진관에 대한 소개도 전해진다.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은 "아스카엔 소장 일제강점기 경주문화재 사진전은 경주엑스포공원의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관람객들에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박임관 경주학연구소 원장은 "노세 우시조는 우리나라 십이지신상에 관심이 높았고 특히 원원사지의 탑지 발굴과 탑재를 모아 복원하는 전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의미가 더욱 크다"며 "90년 전 당시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꿔가는 문화유산의 원형을 제대로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경주학연구원 ·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주관한다.

개막식은 9월 1일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엑스포문화센터 로비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오가와 세이요 작가의 손자이자 現 아스카엔 사진관 소장인 오가와 고우타로(小川 光太郎) 씨가 참석한다.


①


②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여는 '90년 전 흑백사진에 담긴 우리문화재' 展에서는 1920년대 건축 · 고고학자인 노세 우시조가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촬영한 우리 문화재의 유리건판 사진 87점이 일반에 최초 공개된다. ①원원사지 발굴모습 ②감은사지 모습.

사진제공=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문화연수원, 계룡산 도자기 특별전

한국문화연수원(원장 재안)은 공주시의 대표적 문화예술유산인 철화분청사기의 예술성을 알리고자 '계룡산 도자기와 차의 만남전'을 개최한다. 계룡산도예촌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지난 8월 4~9일 KBS대전방송총국 전시실에서 개최된 전시회의 연계전이다.

한국문화연수원은 "앞선 전시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철화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에 너무 짧았다는 아쉬움을 달래고, 전국 방방곡곡서 방문하는 월 3000여명의 한국문화연수원 참가자들에게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진수를 선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는 청자토에 백자흙물을 바르고, 그 위에 철분을 이용해 문양을 새겨 제작하는 자기다. 거칠고 자유스러운 해학성이 돋보이는 예술성으로 명성이 높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박아름 기자

구산선문이 중심, 호남 성보 한 자리에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 … 10월 22일까지

신라 하대 구산선문 개창과 함께 그 중심에 있던 호남지역 산문의 귀중한 성보문화재들이 한데 모인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특별전 '마음이 곧 부처卽心是佛'를 8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곡성 태안사 소장 보물 제956호 청동대바라를 비롯해 300여 점의 구산선문 관련 성보문화재들이 소개된다.

특히 하버드대학교 옌칭도서관에 소장된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이 일반에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끈다. 〈신라국무주가지산보림사사적〉은 1457~1464년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 전해지는 사적기가 대부분 조선 후기 것임을 고려하면 제작시기가 이른 편이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이밖에 국보 제42호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및 국보 제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이 4면홀로그램과 프로젝션 매핑(미디어 파사드) 기술로 개발돼 새로운 전시콘텐츠로 선보인다.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경우 높이 280cm 이상으로, 이를 실물크기로 구현해 생생한 면모를 드러낸다.

전시는 프롤로그 '선(禪),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을 비롯해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구산선문이 열리다'에서는 보물 제1871호 염거화상탑지 등을 비롯해 당나라에 다녀온 신라의 승려들과 그들을 후원한 장보고 선단, 구산선문의 개창에 대해 소개한다. 2부 '호남지역, 구산선문의 중심에 서다'에서는 구산선문의 중심인 호남지역의 3곳 선문, 남원 실상사 · 장흥 보림사 · 곡성 태안사의 진귀한 성보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3부 '선맥이 이어지다'는 '고봉국사 불감〈사진〉' 등 선맥을 계승한 선사들의 활동과 관련한 유물들이 한데 모인 자리다. 4부 '선과 차는 하나'에서는 선종과 차문화에 관련된 유물 등이 소개된다.

전시는 10월 22일까지. 박아름 기자



고봉국사 불감,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왕실 원찰 고장 남양주, 불교유물 특별전

남양주역사박물관서 10월 9일까지… 흥국사 십육나한상 등 전시

왕실의 원찰이 많이 소재한 경기 남양주에서 보물급 불교 유물들이 대거 공개된다.

남양주역사박물관(시장 이석우)은 2017 특별전 '남양주의 보물 세상을 이롭게하다' 展을 10월 9일까지 연다.

전시는 1부 '왕실의 사찰', 2부 '남양주 왕실사찰과 왕실발원 불사', 3부 '부처님의 제자들-흥국사십육나한상', 4부 '남양주 인물과 불사'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전시품으로는 보물 제970호 원각경 언해본, 보물 제1798호 흥국사 십육나한상, 보물 제928호 봉인사 사리장엄구 등 왕실 발원 불교유물이 포함된다.

이밖에 조선의 탄생과 함께 남양주 왕실의 사찰과 왕실 발원 불교 문화유적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국보급 보물 40여 점이 전시된다.

남양주역사박물관은 "옛 양주(楊州)의 중심지였던 남양주는 억불정책이 약해지던 시기 쉽게 왕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왕실 원찰이 많이 세워졌다. 또한 지리적으로 한양 수도와 가깝고 예로부터 문명을 실어나른 한강의 줄기가 흘러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면서 "남양주 보물을 통해 발현된 소망과 바람을 통해 남양주 사람들의 염원을 돌아보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의미를 반추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031)576-0558 박아름 기자



보물 제1798호 흥국사 십육나한상이 전시된 남양주역사박물관 특별전 '남양주의 보물 세상을 이롭게하다' 展 전경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역사박물관

천년의 혼(魂)을
담은 서각(書刻)불사

소납은 경북 성주 청매암에서 수행 정진하는 정도(正道)스님 입니다.

17년전 해인사 원당암에 주석하셨던 혜암 큰스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천년을 보존하는 목재를 섭씨 60도에서 2년간 염장처리하고 8년간 자연 건조한 목재 200여장을 준비하여 시절 인연을 기다립니다.

반야심경(般若心經)108분의 서체가 필요합니다. 서체와 성별, 국적, 종교도 무관합니다. 감동과 원력이 담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원본은 돌려드리고, 영인본으로 서각하여 108편이 완성되면 박물관 또는 수장고에 기증하여 천년을 보존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연 락 처

주 소 :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4길 36-35 (청매암)

전 화 : 054-932-6917

휴대폰 : 010-3523-1977

청매암 주지 정도 합장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050-2879-8709
문의 010-3629-8709

